

하나고, 10년을 맞이하다

- 조계성 교장선생님과 인터뷰



▲ 하나고등학교 조계성 교장 선생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덧 많은 일이 있었던 2018년 한 해를 뒤로한 채 하나고등학교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을 맞아 저희 국문신문부는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하나고등학교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느끼신 점과 앞으로 하나고등학교에 있을 변화 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 취임식 이후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학교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느끼셨나요?

취임식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느낌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고 학생들은 언제나 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고 학생들은 통제와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친구를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을 통해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라는 느낌입니다.

2. 교장 선생님 간담회 등의 행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으로 무엇이 있으신가요?

학기 별로 한 두 차례씩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학생 화장실의 출입문 설치, 면학실의 입식 책상과 멀티탭 추가 설치, 체력 단련실 및 체육관 보수 등이 간담회를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건의 사항들은 바로바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학생회가

하나고의 문화 발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 예를 들어 책상 속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인사 잘하기 등의 운동을 벌일 것을 협의했습니다. 장차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나고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합니다.

3. 학교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무엇이 있으신가요?

하나고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나 잡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은 학생마다 달라야 합니다. 하나고의 가장 큰 강점은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고 학생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그것에 미친듯이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대학입시에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4. 10기 학생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신가요?

신입생은 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10년 차 신입생이라 더욱 기대가 큼니다. 10기 신입생들은 맹목적 시험공부 기계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아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파랑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기 신입생 모두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쌓아온 하나고 역사를 더욱 빛나게 만들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5.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하나고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입니다. 하나고 학생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고 학생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입니다. 최고의 학생답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학생, 나아가 사회에 봉사하는 하나고 학생이길 기대합니다.

학교장으로 취임하시기 이전부터 조계성 교장 선생님께서는 하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롭게 학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과는 별개로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내에서 말고 계시는 역할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자랑스러워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자주적으로 행동하며, 주변 학우들을 경쟁 상대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고등학교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논되었던 사항들과 그것들이 학교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한 학기에 약 한두 차례 정도 정기적으로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시며, 실제로 면학실과 화장실, 그리고 체육 시설 등에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건의 사항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추후 학생회와 함께 건전한 학교 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학기에 만나게 될 10기 신입생들에 대한 기대와 하나고 학생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0기 학생들이 개교 10년 차 신입생인 만큼 큰 기대를 품고 있으며, 마치 파랑새처럼 경쟁과 시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꿈을 쫓는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학생 여러분께 하나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시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고 학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하나고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생각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노력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또한 학생들과의 상생을 이어가시려는 굳은 의지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들만큼 서로에 대한 협력 정신과 본인만의 강점을 찾아 나아가라는 조언을 통해 하나고 학생으로서 날개를 펼치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 기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하나자치대토론회

- 모두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시간



11월 14일 수요일 시청각실에서 하나대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모를 받았고, 총 3개로 결정되었다.

첫번째 안건은 '동아리티와 학급티 가격 제한'에 대한 안건이었다. 1학기에 진행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토론회에서도 높은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 토론이 예상되었다. 1학년 토론자들은 대개 상한선을 제한하고, 그 외에 익명투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학생의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도로 하자라는 반론도 나왔다. 대표토론자 외의 학생들은 익명투

표제의 구체적 방안, 동아리티 허용제 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하거나 질문했다. 2학년 토론자 측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하는 측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두번째 안건은 '학급 자치 및 친교 활성화'로, 작년 대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1학년 토론자들은 학급대의원회를 설치하자는 학생 외의 의견을 대부분 찬성하였다. 서혜지 학생은 정책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연정 학생은 자치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학급 자치 매뉴얼을 설치하자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학년 토론자들은 이 안건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 공감하면서, 학급 친교활동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세 번째 안건은 '학생회 활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특이나 올해 처음으로 학술교류문화축전이 있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실제로도 학술교류문화축전에 대한 의견이 중심이 되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동아리 부원들에게 진행 상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 명확하지 않은 주제를 근거로 일부 원할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지

만, 향후 개선된다면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한 학생회에 긍정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이외로 학생회가 진행한 프로그램 중 라디오, 하트 공연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의 학생들이 제안한 추가 방안도 이색적이었다. 심야 자습제, 급식 식권제, HDMI, 정수기 설치, 의복 규정 완화, 개인 연습실 주말 개방 등이 제안되었다. 시설에 관해서는 과학실 기구 예산 확대, 교과교실 쓰레기통 설치가 제안되었다.

토론은 전체적으로 경험에 입각한 근거가 많았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토론자들의 반론이 이어졌고 청중의 호응이 좋았다. 안건 자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사전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었다.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안건 결정 과정에서도 더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8기 이지민 기자

교양있는 하나인들이 즐기는 학술제!

- 잠들어 있던 자신의 잠재력이 깨어나다!



▲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하나고 학생들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2018년 11월 16일, 하나고등학교의 제10회 학술제가 시작되었다. 하나고등학교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학술제는 공통적인 관심분야를 가진 하나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정한 주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학술제는 발표를 마친 후에 단순히 끝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마무리 짓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학술제는 교내 학술 연구의 정점이며, 학술제를 통해 하나인들은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융합적으로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술제는 전일제로 진행되고, 한 팀당 30분으로, 총 6교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여러 심사를 통해 선발된 실력을 갖춘 팀들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가장 기대가 큰 학술활동은 3,4타임에 배치되어있으며, 학술활동은 주로 동아리 단위로 참여하고 각 동아리의 특색을 나타내는 활동을 진행한다. 3,4타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모두 학술연구발표가 진행되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발표를 들으러 해당 교실에 찾아가야 한다.

학술제는 주로 ppt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일반적인 발표 형식(학술연구발표)과 연극이나 모의재판 등과 같이 활동적으로 발표하는 형식(학술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술제 때에는 모두 학생들은 '발표자, 참관자, 도우미' 역할로 나뉜다. 발표자는 연구 내용에 대해 발표는 사람, 참관자는 발표를 참관하는 사람, 도우미는 학생들의 위치 이동에 도움을 주었고 출석체크를 담당했다. 2학년 발표자들은 과제연구 수업에서 연구하던 주제로 발표하기도 하고, 그 이외의 수행평가, 집현 때 했던 활동들을 발전시키거나,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발표하기도 한다. 1학년 발표자들은 2학년보다 비교적 참가하는 수가 적지만, 철저하게 발표를 준비해주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참가 희망 팀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각각 신청서와 계획서에 적어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는 형식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심사 선생님들께서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심사를 하셨다. 이후, 1차 심사에 합격된 팀들은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문 총 38팀, 자연 총 40팀이 선정되었으며, 학술활동 분야에선 총 13팀이 선정되었다.

이번 학술제는 이전과 달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술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좀 더 자율적인 방향으로 기본 방침이 변화했다. 또한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학술활동 팀을 20팀이 아니라, 13팀만 제한해서 뽑았다는 점이다. 학술제가 끝난 이후, 참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고 인트라넷 설문조사를 통해 입력하는 활동까지 해야 했기에 참관자는 물론, 발표자들도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했다. 주된 참여자인 2학년 학생들에게 하나학술제는 자신들이 연구해온 것들을 정리해보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고, 주로 참관을 했던 1학년 학생들에게 학술제는 학술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과정이 됐을 것이다. 다음 11회 하나 학술제에서는 9기 학생들이 10기 학생들의 학술 연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8기 이수민 기자

새로운 만남의 시작

- 하나고를 찾은 두 명의 손님



지난 5월, 아쉽게도 하나고등학교를 떠나게 된 교환학생 Eva, Teresa를 이어 또 다른 학생들이 찾아왔다. 그 주인공은 Emma와 Katie로, 2018년 10월 1일부터 하나인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고, 스터디활동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문화교류를 진행하는 '교환학생과 공감하는 공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교생활을 즐긴 바 있다. 두 학생에게 인터뷰를 부탁했다.

Q.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케이티: 제 이름은 케이티예요. 시카고에서 왔고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수영이 취미이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엠마: 이름은 엠마라고 해요. 시카고에서 왔고 한국 나이로 20살입니다.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고등학교에서 스피치 팀을 했었어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Q.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엠마: 어렸을 때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케이티: 유학을 가고 싶어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하고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어려웠지만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한국에 오고 싶었어요. 후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다시 왔고, 여름 프로그램도 2년 전에 왔었어요.

Q.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을 텐데,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티: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한국어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집에 있거나 학교에 있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지만... 한국 처음 왔을 때 실수할까봐 잘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웃으면 나도 같이 웃어요.

엠마: 한국어 배우기 어려웠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실수할까봐 긴장이 됐어요.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어를 열심히 연습할 때 충분히 실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나쁘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하려고 해보지 않으면 잘 늘지 않을테니까요.

Q.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가보셨나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요?

케이티: 프로그램 친구들이랑 같이 안동에 갔어요. 한옥에서 잤고, 탈춤도 봤는데 신기했어요. 도산서원에도 가서 유교 문화를 배웠고, 추석 때 홈스테이 가족이랑 진주에 갔었어요. 저는 제주도에도 가보고 싶어요.

엠마: 호스트 가족들이랑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곳에서 레일 바이크도 탔어요. 저는 경주, 부산에 가보고 싶어요.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친구가 경주에 갔었는데, 경주는 역사적인 도시라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부산은 유명한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소라서 가보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부산은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랑은 좀 다른 체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Q.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케이티: 잡채요. 홈스테이 가족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초대했었는데, 다 잡채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스파게티랑 좀 비슷하고, 안 매워서 좋아요. 냉면도 맛있고, 비빔밥도 많이 먹었어요.

엠마: 잡채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호스트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는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어요. 식당에서 먹는 것만큼 맛이 달라요.

Q. 하나고등학교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케이티: 사람들이 잘 해줘서 좋았지만, 조금은 어색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줘서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한 적이 있어 부끄러웠어요.

엠마: 학생들이 똑똑하고, 미국 고등학교보다 더 커서 긴장됐어요. 민정쌤이 우리에게 빨리 적응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Q. 이때까지 수강한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수업인가요?

케이티: AP CALCULUS. 미국에서 물리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선대 어려워.....

엠마: 영미문학. 수업 동안 영어를 말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학생들 말을 이해할 수 있어 편했어요. 미국에서도 고등학교영어 수업을 듣는데, 영미문학 수업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소설을 읽어 좋았어요.



Q. 공장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요?

케이티: 공장 프로그램 2기에 참여하는데, 금요일에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학공부를 해요. 지난 주에는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웠어요. 공장 프로그램은 재미있어요.

엠마: 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좋은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보거나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지난 달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할로윈 캔디를 가지고 와 공장 학생들에게 캔디 콘을 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미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 재미 뿐 만 아니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하나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케이티: 비록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무서운 사람 아니니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많이 물어봐주세요. 내년 1학기 때는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마: 앞으로 추억을 다 많이 쌓고,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으니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도 가끔씩 외로움을 느끼니까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8기 김다빈B, 진하영 기자

사진 제공해준 8기 김지은A, 김민우 학생 감사합니다.

찬란하게 빛난 하나고등학교의 2학기



▲ 가수 옥상달빛의 공연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8월 22일 수요일 하나고등학교 동아리 코람데오가 주최한 가수 옥상 달빛과 함께 하는 위로 콘서트가 열렸다. 햇살마당에서 진행된 콘서트에서 옥상 달빛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수고했어 오늘도' 등의 노래를 불러 많은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힘을 주었다



▲ 졸업생 전공탐색의 날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8월 25일 토요일 제5회 하나고를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 뵈는 전공탐색의 날 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분야, 학과에 진학하신 졸업생 30여 명의 멘토가 재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 2018 하나고 축제 'Hanatendo'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야제와 체육대회, 동아리 부스가 연이어 진행되었 다. "하나텐도"를 컨셉으로 한 2018년 체육대회는 네 팀으로 나뉘어 벌이는 다양한 경쟁과 공연 속에서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한껏 발산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 제 5차 하나愛세이 주희정 코치 강연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10월 31일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보유한 KBL 농구선수 주희정 현 고려대학 교 농구코치님께서 하나고등학교를 방문하셨다. 주희정 코치는 강연에서 "노력", "인성" 등의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을 강조하시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농구 인생 속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다.



▲ 수능 격려/점등 행사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지난 11월 15일 수능 당일 새벽, 수능을 치르러 학교를 떠나는 하나고등학교 7기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사장님과 많은 학생이 나서서 따뜻한 격려를 해주었다. "7기 수능 대박 기원"이라고 써져 있는 빨간색 레드카펫 위를 걷는 7기 학생들의 어깨 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 2018학년도 2학기 1인 2기 발표회 (사진 제공: 하나고등학교)

2019년 1월 8일과 9일, 하나고등학교 8, 9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쌓아온 그간의 실력을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어둠을 밝히는 하나의 별처럼"이라는 문구 아래 8일에는 연극발표회와 예술작품 전시회를, 9일에는 음악과 무용 등의 공연을 펼쳤다.

2019년, 세계를 뒤흔들 선택들

- 국제관계를 변화시킬 각국의 선택

1. 미국과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2019년 1월 1일 0시, 새해가 밝자마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유네스코(UNESCO)에서 탈퇴했다.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탈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두 국가는 그 동안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는 등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개혁을 요구해왔다. 두 국가는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 한 2011년부터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22%를 분담금으로 납부하면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분담금 누적액이 탈퇴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탈퇴의 결정적 요인은 팔레스타인 분쟁인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과의 이스라엘은 영토를 두고 오랫동안 분쟁 중이고 미국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지만 현재는 오히려 국가 간의 분쟁의 장이 되어버린 모습이다. 2019년에는 각국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유네스코가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2. 영국, 브렉시트의 현실화

지난 2016년, 영국에서는 EU 탈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EU 탈퇴 찬성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충격적이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29일 탈퇴 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서명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EU 탈퇴를 위한 협상 기간은 2년이다. 만약 2년 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고 EU 회원국 중 단 한 나라라도 협상기간이 연장에 동의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가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에 관련해 논란이 많다. 의회 내에서는 메이 총리가 제시한 탈퇴 협상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이고 한편에서는 EU와 아무 협정도 맺지 않은 채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해 재투표를 하자는 의견과 EU에 잔류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영국과 EU 회원국의 선택에 따라 다가오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이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게 될 지 결정된다. 과연 브렉시트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영국과 EU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 종결?

소위 G2라고 불리는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2018년에 시작되었다. 국제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쟁으로 두 국가는 서로의 수출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했다. G2라는 이름에 맞게 무역전쟁의 영향은 두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의 경제와 정세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두 국가의 작은 결정에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했다. 대신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90일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큰 불은 꺾으나 과연 무역전쟁이 종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과연 90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이라 칭하며 협상이 잘 끝나지 않을 경우 더 심한 관세를 부과할 뜻을 내비쳤다. 과연 2019년 두 초강대국의 선택이 전세계의 경제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선택의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 현대인의 햄릿 증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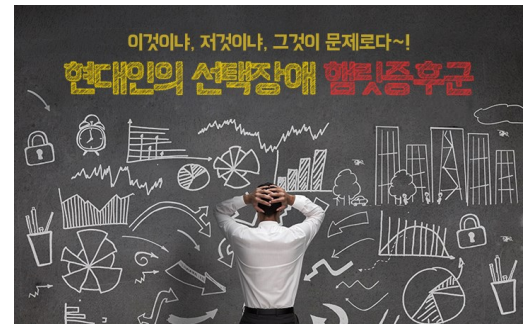
하나고 학생들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하나고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크고 작은 선택들을 겪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고는 선택형·개방형 그리고 무계열·무학년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다. 또한 각종 대내외 학술 및 교류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자율성이 타 학교에 비해 크게 존중받고 전반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따라서 학생들은 선택 전의 두려움과 선택 후의 후회를 반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선택을 어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기 쉽다. 이에 혹시 자신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의 명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로부터, 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인 ‘햄릿 증후군’이 등장하였다. 햄릿 증후군 자가진단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메뉴를 선택하지 못해 타인이 결정해준 메뉴를 그냥 먹을 때가 많다.
- ② 결정을 하지 못해 학업이나 연애 등을 포기한 적이 있다.
- ③ 혼자서는 쇼핑을 하지 못한다. 누구든 대신 결정을 내려줄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한다.
- ④ 누군가 질문을 해오면 “글쎄, 잠깐만 기다려봐.” 혹은 “잘 모르겠는데.”와 같은 애매모호한 말을 되풀이한다.
- ⑤ 사소한 결정을 대신 좀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적이 있다.
- ⑥ 선택을 제때에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⑦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 해당하는 사항이 0~2개면 정상, 3~5개는 초기 결정장애, 그 이상은 심각한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 올바른 선택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것조차 효용이 더 높은 것



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나 불필요한 미련은 버리는 것이 좋다. 아마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한 번쯤은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들어봤을 것이다. 각 일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정리하여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이처럼 각자만의 간단한 선택 철칙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8기 박지연 기자

하트공연과 선택

- 즐거움과 불편함 사이

사람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향과 기호를 가졌기 때문에 사소한 일 하나에도 수십 가지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이런 차이를 대화로, 혹은 싸움으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해결하기에 양측 둘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다르다. 정말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학급, 학교,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한 문제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가장 인원이 적을 가족만 보아도 이는 알 수 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시간이 비는 휴일, 가볍게 영화라도 보자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이때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영화를 고르기가 과연 쉬운가? 정말 운이 좋게도 모두의 취향이 완벽히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벼운 사안에도 치열한 조정이 오가고 결국 어느 누군가는 불만족스러운 영화 관람을 하게 될 것이다. 모두의 요구를 반영하고 모두가 행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이득을 우선시할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일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본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하트공연과 관련된 선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하나고등학교의 특색 중 하나라고도 불리는 하트공연은 공연 동아리원들에게는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무

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루한 일상 중에 잠시 숨을 돌리고 실컷 놀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트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교 전체적으로 조그만 축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펼쳐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트공연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하트공연은 특정한 기간 저녁시간마다 햇살마당에서 30분가량 이루어진다. 기숙사 바로 앞에 위치한 햇살마당에서 마이크를 비롯한 음향장비들을 갖춘 채 조용하지만은 않은 공연이 진행된다보니 기숙사 안에서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흥겨운 음악일 수도 있는 소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짜증나는 소음에 불과하다. 하나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이곳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적다. 수업을 듣고 면학을 한 후 기숙사에 돌아오고 나서도 남은 수행평가

나 공부를 마무리 짓고 짧은 수면을 취하는 생활을 반복하다보면 언제나 피로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런 피로를 저녁시간에 30분 정도 달콤한 잠에 빠지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바로 앞에서 시끄러운 공연이 펼쳐진다면? 공연 동아리의 실력이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다. 1분 1초가 아까운 휴식시간을 방해받고 있는데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마음껏 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공연을 즐기고 싶은 공연 동아리와 다른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바람과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의 바람 모두를 충족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을 바꾸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여건 상 그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과연 지금까지처럼 하트공연을 진행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구만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8기 오윤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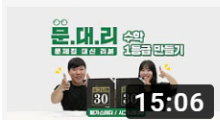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나요?

- 선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체 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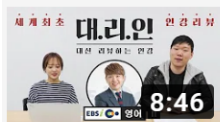
하나고등학교에서 2년을 보내며, 주변의 학생들이 매년 선택의 기로에 놓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양했다. 학업, 진로, 친구관계 등 우리 항상 눈 앞에 선택을 앞둔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많았던 것은 학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이었다. 하나고등학교 내에서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게 좋을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미래에 어떤 과에 진학하여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관련된 고민이다. 물론 하나고등학교의 많은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이 자신의 선택을 도와줄 때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주시며 학생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시기도 한다. 그렇지만 당장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는, 한 달 동안이나 집과 학교 밖의 공간으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끌 조언을 바로바로 구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문대리] 이투스북 수학의 바이블 리뷰!
수학 개념 꼭 잡고가자! | 연세대학교, 고연고티비
12:23



[문대리] 문제집을 리뷰한다! 메가스터디 시그니처 30 리뷰!
| 연세대학교, 고려대연고티비
15:06



[대리인] #3-2. 중위권을 위한 눈높이 영어강의!
| 정승익 선생님 | 연세대학교, 고연고티비
8:46



[대리인] #3-1. EBS 영어는 주혜연!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 연고티비
9:32



[대리인] #2. 이번엔 EBS 수학리뷰다!
| 심주석, 정승제, 차현우 선생님 | 연세대연고티비
20:37



[대리인] #1. EBS 국어 인강을 리뷰해보았다!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 연고티비
11:10

▲ 유튜브 채널 연고티비의 리뷰 콘텐츠 '대리인'

최근에는 이런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들처럼 바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신 여러 항목을 비교해주고, 추천해주는 콘텐츠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런 콘텐츠의 장점은 내가 직접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여러가지를 체험해보고 장단점을 비교하지 않아도, 짧은 영상 혹은 글 등의 매체 안에 그 내용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도 위 사진에 등장하는 영상들처럼 티비나 유튜브를 통해 많은 리뷰 영상이나 추천 영상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디어 시장이 발달하면서 대중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원했고,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사람들이 선택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주제를 타이틀로 내걸고, 이 고민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비교' 콘텐츠이다. 주로 그 고민을 예전에 했던 사람, 이미 그 선택의 과정을 거쳐 극복해 낸 사람이 등장한다. 실제로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으로써, 대상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있는 사람으로써, 자기가 선택을 앞두고 세웠던 나름의 기준, 그리고 어떤 물품, 서비스, 항목이 그 기준에 충족했는지 등을 설명한다. 입시, 학업 관련 콘텐츠에서는 대학생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선생님들 등이 등장할 것이고, 예를 들어 미용 관련 콘텐츠에서는 전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요리 콘텐츠에서는 셰프가, 운동 콘텐츠에서는 트레이너가 등장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도울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더욱 큰 신뢰감을 얻도록 해준다.



[입시그늘] Ep07. 독서실 vs 집 | 미어캣

▲ 유튜브 채널 미어캣의 비교 콘텐츠



미션언니 | 영어회화 독학 vs 인터넷 강의로 원어민 수준 ...

▲ 유튜브 채널 걸스빌리지의 비교 콘텐츠

위 사진의 영상들과 같이 매년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낼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실제로 두 장소를 비교하며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는 콘텐츠가 등장하였다. '독서실 VS 집, 공부할 때 어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주말 4타임 면학시간, 기숙사 VS 면학실, 어디서 공부할까?' 와 같은 질문만큼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앞두고 해본 고민일 것이다. '영어회화 독학 vs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이다. 학원을 가지 않는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집을 풀며 독학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강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일은 태반이다.

이러한 콘텐츠의 기반은 '공감'이다. 시청자들, 구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며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선택을 어려워하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계획한 것이다. 평소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들과 후배들이, 적극적인 매체 활용을 통해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하나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찾아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을 대비하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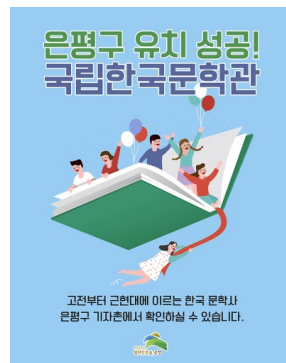
문인의 성지, 은평구, 기자촌에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되다

–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자촌, 문학유산을 역사로 보존하는 국립한국문학관

우리 하나고등학교가 위치한 은평구 진관동. 진관동이라는 지명은 진관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중에서도 국립한국문학관이 2021년 하반기 새로이 개관될 장소인 기자촌은 말 그대로 기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진관동 175 번지 일대를 지칭하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마련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다. 은평구 속 은평뉴타운의 길을 걷노라면 주변 곳곳에 문인들의 얼굴과 대표작품이 벽면에 붙여져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한 문인들이 아닌, 은평구의 자랑 ‘은평문인’들이다. 그 일례로 시인 신달자, 이근배, 정지용, 윤동주 그리고 작가 김훈, 소설가 최인훈, 이호철 등이 있는데, 이런 유명한 분들이 은평구를 거쳐갔음은 은평구 입장에서 실로 괄목할 만하다.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박물관과 같은 곳으로, 앞으로 한국문학의 역사의 유지 및 보존에 큰 기여를 할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그렇다면 국립한국문학관이 기자촌에 유치되게 된 이유가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당시 저마다 다른 이유를 내세웠는데, 대표적으로 대구의 경우 6.25 전쟁 당시 전국 문인들이 대구로 모여들었던 점, 강릉의 경우 최초 한문소설 및 한글소설이 탄생한 고전문학의 성지라는 것, 파주의 경우 출판단지가 있음을 그 이유로 들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열띤 유치전에 뛰어 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문학의 유지도 분명

명예로운 일이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수백억 원 규모로 지원될 국비와 증가 추세에 있을 관광객이었던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게 된 이 각축전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 계획은 부재하고 미래의 국비 확보에만 신경쓰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지자체의 예산에 상당한 타격을 줄 불안한 기류에 휩싸이기도 했다.



◀ 은평구에 유치된 국립한국문학관

이런 치열한 각축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그 유치지역으로 선정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유서깊은 기자촌에서 많은 문인들이 배출되었다는 점도 한몫 했다. 그러나 이와 맞물려 유서깊은 옛 서울 역사인 문학역 서울 284에서는 문화재계의 반발이 거셌고, 파주시의 두 후보지는 서울과 동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 몫했다. 사실 기자촌에 앞서 결정된 부지는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였는데,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유치권은 자동

으로 기자촌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염무웅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성장기에 한 나라의 전체적인 문학 작품을 읽고 자양분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합적인 문학관이 없어 이광수, 염상섭과 같은 훌륭한 문인들의 흔적과 향기를 후세에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문학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이 문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자촌에 유치된다는 것은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자랑스러운 은평문인을 강조하는 은평구 내에 이제는 비록 역사속으로 사라져 지명만이 남은 기자촌 (대표 작가 : 김훈)의 자리에 문인들의 문학을 영원히 빛내 줄 문학관이 역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진관동 내에는 한국 고전 번역원 및 이호철 문학관이 이미 들어서있다. 그만큼, 우리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민족의 혼을 담아내고 민족의 역사를 문학만의 언어로 재탄생시켜내는 각종 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문학을 소비할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학을 지켜내고 보존해내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그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고등학교 학생들도 한 번쯤은 문학을 보존하는 일에 동참하며 곳곳의 문학관에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

8기 욱경은 기자

방탄소년단이 세계에 증명한 ‘IDOL DNA’

– 현재진행형 K팝 리더의 이유 있는 성공



K팝 아이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아시아 출신 가수로서는 최초로 미국 빌보드(Billboard)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의 정상에 오름으로써 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Favorite Social Artist)’ 상을 수상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회 연속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에서 브루노 마스, 카밀라 카베요 등 쟁쟁한 가수들을 꺾고 톱 아티스트(Top Artists) 부문 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러 지표들이 증명하듯, 현재 방탄소년단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그룹이다. 이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방탄소년단의 주된 성공 요인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의 효과적인 활용을 꼽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는, K팝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본 후 자신의 반응을 찍어 올리는 리액션 유튜버들이 방탄소년단의 곡 ‘쩔어’에 반응하는 동영상을 올렸던 것이 해의 팬들이 결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방탄소년단의 리액션 비디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 연습생 시절부터 월드 스타가 된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들을 업로드해오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팬들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 이외에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뛰어난 음악성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졌다. 데뷔 때부터 <2 COOL 4 SKOOL>, <SKOOL LUV AFFAIR> 등의 앨범에서 10대의 꿈과 사랑 등을 주제로 멤버들이 직접 겪고 생각한 바를 노래에 녹여냈다. 이후 꾸준한 음악적인 성장을 거쳐 발표한 앨범 <Love Yourself> 시리즈에서는 자신을 사랑하자는 주

제를 담았다.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명 토크쇼 ‘The Ellen DeGeneres Show’에 출연했을 당시, 호스트인 엘렌 드제너러스가 “노래 가사를 쓸 때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4일에는 한국 가수 최초로 UN 총회에 참석해, 리더 RM이 7분간 영어 연설을 진행하며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연습생 시절부터 다져진 멤버들의 작사·작곡 실력으로 만들어진 자작곡들을 앨범에 다수 수록하고, 해외의 유명 DJ·작곡가와 협업을 맺는 등의 노력으로 여러 매체에서 호평을 받는 음악성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가수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9월 25일 미국의 인기 토크쇼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리더 RM과 멤버 슈가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시상식이자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그라미 어워드(Grammy Awards)’에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기세라면 그들의 꿈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만 같다.

8기 이재혁 기자

내 귀에 캔디, ‘AS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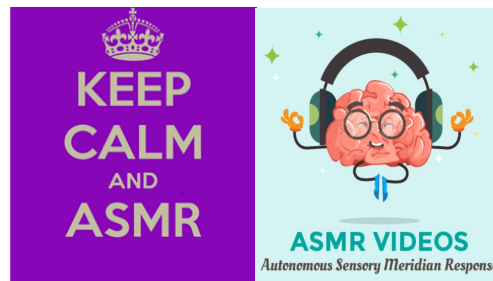
-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분 좋은 자극

요즘 흔히 이 영상을 틀면 사람들 모두 어느새 한동안 났을 놓고 빠져들게 된다. 사각사각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부터 포르르 물이 흘러가는 소리, 후루룩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소리까지 다채롭게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는, 바로 ASMR 영상이다. 실제로 오늘날 유튜브, SNS 조회수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영상들이기도 하다. 단순한 ‘소리’를 담은 영상인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ASMR에 왜 그리도 열광하는 것일까?

2009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ASMR은 자율감각 쾌락반응(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자극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기분 좋은 자극’, 즉 ‘Tingle’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SNS 등 온라인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ASMR 영상이 더욱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ASMR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같은 톤과 주기를 갖는 반복적인 소리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계속 듣다 보면 뇌가 그에 맞춰 조건화된다고 한다. 따라서 해당 소리에 익숙해지면 ‘기분 좋은 소리’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기분 좋은 소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집중이 잘 되거나 안정된 기분에 빠지고 잠에 쉽게 들 수 있다고 한다. 김선미 중앙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폭 잠들려면 우선 ‘이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반복되는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면 뇌파가 느려지고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최면의 원리와도 통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매거진에 따르면 2015년 영국 스완지 대학의 심리학 연구진도 실험을 통해 ASMR 콘텐츠를 본 사람들 중 상당수가 숙면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얻었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무엇보다 ASMR이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는 ‘먹방’이다.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먹는 과정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를 담아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시각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각을 부각시켜 시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은 광고계에서도 ASMR이 떠오르고 있다. 인기 아이돌 ‘워너원’을 모델로 내세운 한 인터넷쇼핑몰 광고는 수목화 배경에 새가 지저귀는 자연의 소리를 배경음악으로 깔아 소리의 의외성을 두었고, 이는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ASMR이 오늘날 대중들에게 주목받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말에 따르면, 대중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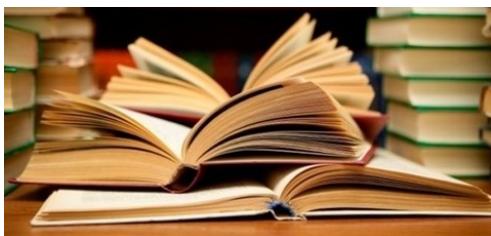
새로운 자극에 쾌감이나 욕구를 느끼며, 이 새로운 자극의 중심이 ‘시각’이 아닌 ‘청각’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화려한 볼거리가 즐비한 현대 문화콘텐츠 속에서 피로감을 느낀 대중들은 심신의 안정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새로운 요소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ASMR이 현대인들의 역행적인 ‘아날로그 감성’을 정확히 자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ASMR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영상을 반복 청취하면서 ASMR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는 자칫 자기 전 특정 행동을 하거나 용품에 의지해야만 잠들 수 있는 ‘수면개시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소리가 주는 자극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휴식이나 오락을 위해 ASMR을 이용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지나치게 이를 즐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ASMR을 과하지 않게 적절히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 하나인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잠간의 휴식이 필요하다면, ASMR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9기 이정민 기자

21세기 교양의 의미

- 식민지 조선인의 명작



교양이란 무엇인가. 흔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교양이 있다, 없는 사람을 교양이 없다고 부르곤 한다. 수능보다는 수시를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은 하 나고등학교에서는, 특히나 교양이 중시되곤 한다. 교양의 척도 중 하나로는 읽은 책의 깊이와 넓이가 있다. 읽은 책이 많고, 전문적일수록, 교과 과정보다 심도 깊을수록 교양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인지 독후감을 제출하는 기간이 되면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과와 관련된 저명한 도서를 검색해 “마구 읽어대곤”한다. 음식으로 치자면, 음미보다는 폭식에 가깝다. 그렇게 쌓은 교양은 어쩐지 공허하고 나의 것이 아닌 느낌이다.

사실 이러한 기조는 현대에 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유명한 책을 닦치는 대로 읽는 사회풍조는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다. 식민지 시대 잡지와 신문, 책, 그리고 그 시기를 회고하는 책을 통해 그릴 수 있는 식민지 조선의 모습은 “양서는 성공의 지름길”이

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마치 우리의 “어떻게 공부 하셨어요?”와 같이 “주로 무슨 책을 읽었어요?”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또는 도스토옙스키, 투르게네프 등의 이름이 모범 답변처럼 올린다.

오늘날 우리의 짐작과 달리, 식민지 시대 조선인들은 ‘세계문학’에 흠뻑 빠져있었다. 유치진은 “이 해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어쩐지 나의 길을 밝혀 주는 느낌”이 들어 닦치는 대로 읽었다고, 이하운은 “분명치는 않지만 어린마음에도” 할머니의 이야기보다 <걸리버 여행기>와 <검둥이의 설움>이 더 재미있었다고 한다. 한 학생은 “맛대가기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모르면 문학의 이해는 가망 없다는 각오로”, “놀이에만 열중하는 동료들을 우습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덤벼들었다 한다. 무언가 이상하다. 세계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쩐지 오늘날의 합격 수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식민지 조선에서 세계문학은 훌륭한 이야기이기 전에 문명한 세계에 눈 뜨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셈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일까? <동아일보>에서 한 3대 신문사 장편소설 작가 인터뷰를 보면 세 작가는 모두 외국

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예잡지인 <태서문예신보>의 글을 살펴보면 원작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도 아닌 구절의 인용이 본문을 압도할 정도로 이루어져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명작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를 인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통로가 일역인지라, 원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번역된 책을 읽으며 원작이 의도한 바가 흐려지거나 잘못 전달되곤 하였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에 급급해 그 의미가 fine 대신 famous로 오용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 돌아와, 현재의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 또한 식민지에 멈춰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우리는 진정 훌륭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일까? 유명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일까? 훌륭한 책이란 읽는 사람의 의문점을 진정으로 해소시켜주고 마음을 든든하게 해 주는 책이다. 모두가 극찬하는 책이라고 꼭 나에게도 좋은 책은 아니다. 각자가 지닌 마음의 열쇠 구멍에 맞는 책이 있기 마련이다. 이번 겨울방학, “모두가 읽는 책”이 아닌 “나에게 맞는 책”으로 진정한 교양을 쌓길 바란다.

8기 김지은A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 내신 비리 문제, 그 근원론?



작년 8월, 고등학교 내신 비리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다. 바로,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2학년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해 성적 조작 의혹이 일었던 사건이다. 2018년 1학기 이과 전교 1등을 한 딸은 2017년 1학기 전교 59등을 하고, 2학기 전교 2등을 했었다. 그리고 2018년 1학기 문과 전교 1등을 한 딸은 2017년 1학기 전교 121등, 2학기 전교 5등을 했었다. 갑작스러운 성적 상승과 쌍둥이가 나란히 전교 1등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하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교직원 자녀 2명이 이번에 동시에 전교 1등을 했다"면서 "부정 의혹을 밝혀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장학 형태로 장학사를 파견하여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였다.

쌍둥이의 휴대폰에서 나온 답안과 오답 정황, 풀이 과정, 자택에서 발견된 시험지 등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도 조사 과정에서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는 혐

의를 강력하게 부인하여 전 국민을 분노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쌍둥이 자매가 0점 처리를 받고 퇴학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자체로도 전 국민은 여러모로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은 내신 비리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어찌면 우리나라의 현 입시제도에서 찾을지도 모른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성공한 삶이다.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모두 익숙한 말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이 꼭 정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저러한 말이 거의 맞는 말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해 할 짓, 못 할 짓 구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이러한 사회구조 안에 살아가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기에, 아마 쌍둥이 문제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이러한 내신 비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뒤집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공통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입시 제도에 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갖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공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8기 이지우 기자

세월호 참사, 그 후 언론이 취한 태도는?

- 변화하지 않는 언론, 문제의 근원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날이다. 바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이었다. 당시 JTBC, MBC, YTN 등 많은 방송사가 뉴스에서 ‘탑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면서, 온 국민은 언론사의 구조 소식만을 기다리며 이에 집중했다. 하지만 자녀를 기다리며 팽목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지나친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수많은 언론들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틀 후, 대한민국의 모두가 ‘에어포켓’에 희망을 걸고 초조하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와 해외 언론사가 각각 보도한 내용만 비교해 봐도 확실히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CNN은 수온에 따른 생존자의 존재 가능성을 데이터화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객관적으로 보도한 반면, 한국의 M 언론사에서는 실종자가 모두 사망했다고 가

정했을 시 발생하는 피해 비용과, 정부는 유족들에게 얼마를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보도했다. 또한,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배 전복 사건(에어포켓을 통한 구조 성공 사례)에만 이목을 집중시키며 골든타임을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은 언론의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언론은 해경과 정부의 재난 시스템을 비판하지 못하였고 이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 못했다. 둘째, 수많은 언론사가 참사 후 1~2년이 지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주관적으로 보도하며 유족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셋째,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었을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에 관련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음에 따라 ‘결국 정치 권력에 유착한’ 언론사의 태도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다.

1986년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이 담긴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연씨는 “보도지침 등 언론통제에선 자유로워진 측면은 있으나 언론개혁의 화두는 계속 존재한다. 과거엔 언론을 통제하는 정부에 부역하는 언론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을 대변하는 공정 언론, 민주 언론이 아니라 정파나 진영논리에 휩쓸려

자사 이익을 위한 왜곡 보도가 넘친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의 다양성이나 다원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걸 빌미로 허위보도를 남발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광고매출과 연동된 클릭 수를 의식해 선정적인 속보 경쟁에 몰두하는 우리 언론의 특성 때문에 현재의 미디어 환경 역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책 ‘신문 읽기의 혁명’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게이트키퍼와 어젠다세팅을 통한 편파적 언론 프레임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게이트키퍼이란 뉴스 결정권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말하고, 어젠다세팅은 매스 미디어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이슈에 대해서 공중의 생각, 토론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 기사 중 일부도 결국 누군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에 따라 정해진 보도 내용을 담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은 참된 언론인으로 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읽거나 보는 구독자/시청자/청취자들은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해 보며 읽는 습관을 가져 본인의 주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8기 김서현 기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

– 평화운동가 ‘김복동’ 별세



지난 1월28일 오후 11시경 김복동(93) 할머니는 1년의 암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 김 할머니는 인권 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다. 김 할머니는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2015년에는 분쟁 지역 피해아동 지원과 평화활동가 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나비기금’에 기부하여 이 돈으로 ‘김복동 장학기금’이 만들어졌다. 김 할머니는 같은 해 국제 언론단체가 선정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영웅’에 선정되어 넬슨 만델라, 마틴 루서 킹 목사 등과 이름을 함께했다. 지난해에는 공익사단법인 정(이

사장 김재홍·김용균)이 제정한 ‘바른의인상’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공익사단법인 정은 “김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거의 전 재산을 후진교육을 위해 기부했으며 평화와 통일의 신념과 한일 과거사에 대한 바른 역사관을 전파시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재일도포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다. 2016년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일조선학교 학생 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22일 신촌 세브란스 병실에 누운 채로 재일 조선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라며 3000만원을

더 내놓았다. 마지막까지 김 할머니의 소원은 아베 한테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 일이었다.

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김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끝까지 해달라. 재일 조선학교 아이들 지원하는 것도 끝까지 해달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아무개(93) 할머니도 같은 날 별세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다.

8기 윤채영 기자

심신미약,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으로 알아보는 심신미약, ‘김성수 법’

2018년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흉기로 가격당해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성수 씨는 피시방을 이용하던 중 자리에 다른 손님의 음식이 남아 있자 신 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그 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시방 입구에서 신 씨의 머리, 목 부위를 서른두 차례 가격하고 치명상을 입은 신 씨는 병원으로 즉각 후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이대목동병원 남궁의 주치의가 훗날 게시한 SNS 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로 이송되었다. 또한, 의료진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피의자의 가족이 김 씨가 10년간 우울증 등의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에 현재 (2019.01.13) 기준 역대 최다 참여 인원을 기록한 청원이 등장했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1,192,049명이 참여한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에서 우울증,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으로 강력범죄의 형량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시비를 변별하고 서울 지방 법원 판사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국민의 이러한 분노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강남역 살인사건’ 등 이전 판례에 의해 쌓여온 것이라 전했다. 또한, 사건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건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적으로 심신 미약 관련 법률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에 따라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김성수 법’은 이 조항에서 ‘감경한다.’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다. 국민 청원의 답변을 맡은 김형연 법무비서관에 따르면,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량 절감 여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신미약에 관한 외국의 법률 또한 다양하다. 일본은 반드시 감경하고, 독일은 우리나라의 개정 후와 같이 법관의 판단에 따른다. 프랑스의 경우 감경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양형 고려 사유로 인정된다.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이후 심신 미약과 강력 범죄의 형량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위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 영향을 받아 주취 감형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저지를 범죄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는 30% 이상 증가했다. 국민이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형량 증가 논의와 ‘김성수 법’의 통과는 기쁜 소식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선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반면 피의자는 감형되었다. 더불어 이번 사건에서는 유족과 국민의 우려를 끼치게 한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뒤늦은 조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국민과 학생들의 비판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나 학생들은 비교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느낀 법적 부당함, 차별, 오류 등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역시 현재 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제안이 전달되고는 있다. 하지만 더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해야 사회적 문제가 뒤늦지 않게 해결되어 최소한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할 것이다.

9기 한예찬 기자

우리가 사는 집은 얼마나 안전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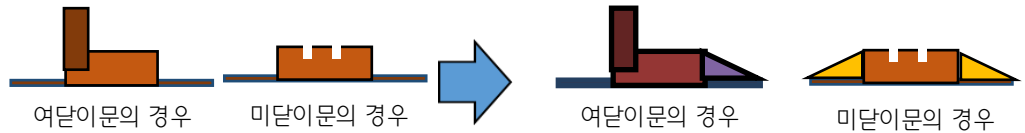
-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위험요소와 예방법

일본 통계청의 있는 한 자료에 따르면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충격적인 통계이다. 행정안전부가 11일 발표한 '2018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집에서 일어난 화재 사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집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 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집의 구조나 설비와 관련된 사고로는 익사, *전도 그리고 *전락 등을 들 수 있다. 익사는 영유아나 고령자에게 많으며, 대부분이 욕조 안에서 일어난다. 욕실 말고도 계단, 건구, 유리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세가지 요소를 예방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1. 계단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계단의 이용시간은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체류시간당 사고율을 생각하면 집에서 계단이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계단을 설계할 때에는 경사와 모양에 주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굴러 떨어질 것을 대비해 가능하면 *충계침을 설치해서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2. 욕실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주로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의 이용한 타일을 큰 타일(30*30cm)→작은 타일(10*10cm)로 바꾸면 이음매 부분이 많아서, 덜 미끄럽다. 익사를 막기 위해 욕조의 설계 또한 중요하다. 욕조의 높이는 주로 40~45cm지만, 고령자나 어린이를 생각하면 40cm이하로 정하고 안전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의외로 욕실의 온도를 바깥 온도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의 몸은 온도 차이로 인해 혈관이 급 수축해서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기증이 일어나서 욕조 안에 쓰러져 익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열 기능을 높여서 온도 차이를 가능한 적게 하고, 욕실에 난방장치를 설치해서 온도차이를 없앨 수 있다.

3. 작은 단차(턱)

나이를 먹으면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살짝 미끄러져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20,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할 때 미리 예측을 하고 설계

를 해야 한다. 보통의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이용하는 곳에는 단차가 있기 마련이다. 단차를 없애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1. 단차해소부재를 붙인다. 2. 미닫이문 같은 경우 *매다는 문으로 한다. 3. 바닥 공사를 해 높이를 맞춘다.

하나고 기숙사의 안전성을 검토해 보자. 하나고 기숙사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요소 2가지만 뽑았다. 1. 현관과 방 사이의 공간, 현관과 방 사이의 턱은 생각보다 높이가 높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딱히 짚을 게 없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벽에 손잡이나 바닥에 단차해소부재를 붙이는 방법이 있다. 2. 좁은 욕실, 욕실은 매우 미끄러운 곳으로 넘어지기 쉬운 곳이다. 바닥 타일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샤워기와 세면대 사이 유리이다. 욕실이 많이 좁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 유리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파편에 베이는 등 피해가 더욱 생길 수 있다. 이는 유리 대신 커튼을 다는 형식으로 대체해 예방할 수 있다.

9기 김승혁 기자

사회계약론: 국가란 무엇인가

-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어떠한 국가의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고 태어났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의 법률에 구속받고, 국가의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국가를 당연한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기에 불분명한 국가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확대되며 국가가 되었을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지배자가 일방적으로 지배를 선포하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중 현대 사회학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이론은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계약

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결합체라고 보는 이론이다. 최초로 사회계약의 개념을 제시했던 것은 토마스 홉스로, 그는 국가가 존재하기 전의 상태인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서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가 위협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그 권리를 주권자에게 모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한 것이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다. 로크는 국가가 모든 힘과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은 홉스와 달리 국가 권력이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군주에게 반기를 들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현대와 같은 간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사회계약론을 완성한 사람은 장 자크 루소로, 그는 시민들이 스스로를 모든 시민의 공통적인 의지가 모인 일반의지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주권론을 주장하였다. 루소는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말을 통해,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인 권력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그 사실을 자

각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희망하였다. 루소가 한 또 다른 유명한 말로는 "영국 국민들은 의원을 선출하는 동안만 자유로우며, 그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가 된다."가 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주어야 하는 의원들은 국민들의 대리인이 아닌,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지배자처럼 행동하였다.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는 국가의 존재를 당연한 것처럼 믿고 있지만,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인간 이성의 산물일 뿐이다. 루소의 말처럼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를 정치 참여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로크의 말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국가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면 저항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기사를 통해 학생 신분인 하나인들이 국가 탄생의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가 권력이 불안정함을 인지하고, 주권자로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8기 박진 기자

역사의 역사

- 역사책과 그것을 쓰는 사람들

지난해 6월, 기사 제목과 같은 제목의 책이 출간 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가 바로 그것인데, 책 내용에 대해 더욱 정확히 말 하면 역사 서술의 역사에 관해 서술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권의 책이 쓰일 정도로 역사 서술 방식과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서술할 때 가지는 태도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 역사학자 란케(왼), E.H.카(오)

먼저 란케는 역사를 현실정치와 철학에서부터 탈피시킨 학자로서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주장한 사

람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역사학은 과거를 재판 하고 미래의 유용함을 위해 동시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직무를 갖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로 온고지신을 떠올리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 란케는 시대별 인간 자유의 역사적 조건을 규정하는 주도이념을 파악하는 것을 역사학의 연구 방법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료의 엄격한 고증을 통해 어떠한 목적의식과 선입견이 없는, 개별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치되는 곳에 있는 역사학자로는 E.H.카가 있다. E.H.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로 인식했다. 그는 '역사가는 잠정적인 사실 선택과 그러한 선택을 이끌어 줄 잠정적인 해석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부리가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가가 없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이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 작용이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 말하며 사료는 당시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과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역

사가는 역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크게 란케와 E.H.카의 역사 서술 방식에 대해 살펴 보았지만, 역사 서술의 방식이 이 두 갈래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아날학파의 경우 과거 사실의 수집이라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사회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역사를 주장해 역사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시켰다. 아리에스는 '죽음'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한 사람으로, 순화된 죽음,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금지된 죽음으로 죽음이 인식되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역사를 서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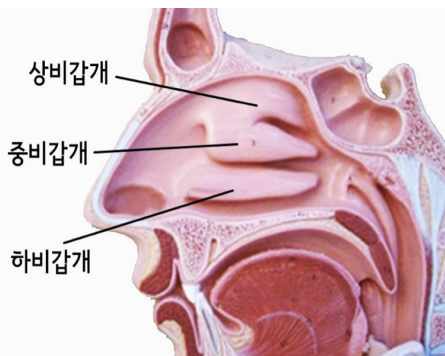
이처럼 역사서술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다. 학생인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 서술된 역사서를 통해 역사를 배운다. 교과서, 참고서, 그 외의 책이 모두 그렇다. 이제 역사 서술이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보는 책에서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8기 송서영 기자

코막힘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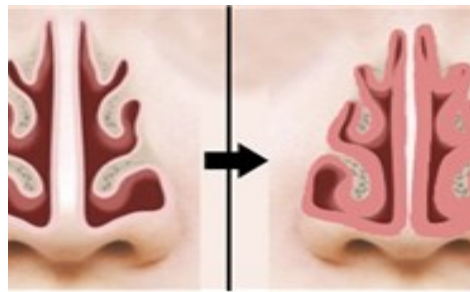
- 감기에 걸리면 왜 한쪽 코만 막힐까

감기에 걸려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코를 풀어도 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 자려고 누웠을 때는 한쪽 코가 막혀 옆으로 누워보고, 또 반대쪽으로 누워보고 뒤척이며 잔 경험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코는 왜 한쪽 코만 막힐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막힘의 원인이 콧물에 있다고 생각한다. 호흡을 통해 코로 들어간 공기의 흐름을 콧물이 차단시켜 코가 막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두 쪽 코가 아닌 한 쪽 코만 콧물을 생성하는 것일까? 콧물이 원인이 라면 아무리 코를 풀어도 코막힘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막힘의 원인은 콧물이 아닌 '비주기'에 있다. 비주기란 코가 1시간에서 4시간 주기로 양쪽 콧구멍의 비점막이 수축과 팽창을 교대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코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평소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코의 안쪽 양옆에는 비갑개라는 것이 있는데 비갑개는 위에서부터 상비갑개, 중비갑개, 그리고 하비갑개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비갑개는 각

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 하비갑개는 공기의 방향이나 가습, 난방, 공기의 여과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코에 병균이 들어오는 등의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은 하비갑개의 점막을 부풀어 오르게 한다. 코는 비주기에 따라 번갈아 가며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비점막이 부어오른 상태에서 하비갑개가 팽창하면 코가 막혀 숨 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앉아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코가 더 막히는 이유는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하비갑개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코막힘 현상을 해소하는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식염수이다. 식염수를 이용한 코세척은 코 내부의 불순물을 외부로 배출하여 알레르기 비염 등의 항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식염수의 농도가 체액 농도와 같기 때문에 삼투압 작용을 하여 부은 혈관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 비록 코세척이 일시적으로 코의 분비물과 먼지 등을 제거하여 호흡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꾸준히 매일 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뿌리기만 하면 막힌 코가

바로 뚫리는 비염 스프레이가 있다. 뿌린 즉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접한 환자들은 약을 끄기가 쉽지 않다. 비염 스프레이로 알려져 있는 비점막수축제는 코 점막의 혈관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작용해 혈류를 감소시켜 강력한 혈관 수축 효과로 코 속 분비물이 줄면서 코 막힘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비점막수축제는 4일 이상 뿌리면 내성이 생겨 일반적인 코감기에 사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금세 다시 코가 막힐 수 있고, 코 막힘 증상이 반복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비주기에 문제가 생겨 약물성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염을 예방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집먼지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집먼지 진드기는 우리나라 알레르기 비염 유발요인의 80%를 차지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알레르겐으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비염 예방 및 증상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의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 코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염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기 쉽다. 또한, 코는 눈, 귀 등 호흡기관도 연결되어 있어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비염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9기 김수아 기자

과학을 좋아한다면 SEN-V는 어때요?

- 하나고등학교 유일무이 자연과학 융합동아리 'SEN-V'를 소개합니다



SEN-V는 하나고의 유일한 자연과학 융합동아리다. 동아리 내에서 물리/화학/생물 3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수 별 팀마다 3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SEN-V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자칫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는 개념적인 부분만을 다루지 않는다. SEN-V는 활동 중심의 동아리로 과학적인 개념 정립은 물론 과학적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쾌한 활동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 덧붙여, 동아리 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주어진 동아리 시간을 잘 활용해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 SEN-V만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활동을 소개하겠다. 먼저, 'SEN-PROJECT'다. 이 프로젝트에선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과학 관련 주제를 갖고 팀을 나눠 연구한 뒤 TED 형식으로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에는 법치의학, 인공 근육, 과학렌즈 등에 대해 연구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다음은 봉사활동이다. SEN-V는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부근에 있는 은평 뉴타운도서관에서 '과학아 놀자'라는 봉사활동을 주최하고

있기도 하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실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쌓아온 과학적인 역량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경험 역시 SEN-V에서는 해볼 수 있다. 체계적인 팀 활동체제를 자랑하는 SEN-V는 팀별 스터디 역시 탄탄하게 진행된다. 작년 물리 팀은 1, 2차원 평면운동 공식에 대한 증명, 돌림힘과 유체역학에 대해 학습했고, 화학팀은 일반 화학 교재를 이용한 발표식 스터디, 생물팀은 AP biology 교재를 사용해 '분자생물학'에 대해 공부한 뒤 발표를 진행했다고 한다. 2학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교재로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10기들에게는 2학년 때 공부할 과학을 예습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아리 활동은 실험 경연이다. 팀의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설정해 실험 설계부터 진행까지 동아리원들이 직접 1년 동안 쌓아온 과학적인 역량을 발휘해 진행하는 마지막 활동이다. 드론개조로 알아보는 회전 관성, 아세틸콜린/에피네프린의 효과, 화학 진동반응 등의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제 SEN-V가 2018년에 한 교내활동과 외부대회에 대해 알아보겠다. SEN-V는 하늘고등학교와 함께 하는 동아리 연합포럼에 참여하였다. 비슷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고등학교의 동아리와 연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여름방학에는 전국의 동아리가 모여 동아리의 특징이 살아있는 부스를 운영 하는 YCF에 참가해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다. 또한,

2018 축제 HANATENDO에서는 녹말을 사용하여 만든 비뉴턴유체를 사용한 뽑기 이벤트와 함께 SEN-V의 전통인 슬라임을 제작해 판매했다. 하나고등학교에는 여러 동아리 참여 활동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활동은 하나 학술제이다. SEN-V는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하나 학술제에도 참가했다. '물/화/생의 원리를 적용한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라는 주제로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골드버그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뒤 학술제 부스 참여자들과 함께 골드버그 장치를 시연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내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당시 제작한 초대형 골드버그 장치는 성공적으로 작동되어 많은 사람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활동은 수학동아리 LIM과의 합동 포럼이다. 과학과 수학이 연계된 주제를 잡아 일반과학과 고급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2학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발표를 진행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한 SEN-V의 부원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도 증진은 물론 과학적인 역량까지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2019년에도 SEN-V는 위와 같은 활동들과 더불어 작년에 나가지 못했다는 KSCY와 민사/용인외대부고 연합 의학 포럼 역시 참여할 예정이라 한다. SEN-V는 동아리 분위기도 손에 꼽을 만큼 매우 좋다 하니 동아리를 고민하는 10기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들은 학생인가? 래퍼인가?

- SB 첫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힙합 음악 동아리 Sophisticated Beast(이하 SB)는 하나고등학교의 간판 공연 동아리 중 하나이다. 특유의 허물없는 동아리 내 분위기로 잘 알려진 SB는 출중한 랩 실력 및 무대 매너로 많은 학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신입생 지원 경쟁률 기록이 최근 2년 연속으로 경신될 만큼 SB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응원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2019년 새롭게 들어올 10기의 오디션도 3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3월 초 동아리/집현 게시판을 참고하길 바란다.

지난해 SB는 2월 신입생 환영 공연, 5월 하트 공연, 8월 하늘고 학술문화교류축전 공연, 9월 축제 공연 등 총 4번의 공연으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모든 SB의 무대는 관객과 공연자가 함께 호흡하며 다 같이 즐길 수 있어 특별했다. 특히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쪽에서 손을 뻗고 호응하

는 모습은 실제 힙합 공연을 연상케 했다. 이러한 활발한 교내 공연과 더불어 SB 8, 9기 동아리원 9명 모두가 은평구 주최의 외부 공연, 다른 학교 동아리와의 협업 등 대외적인 활동까지도 추진하기도 했다.

무려 600명에 이르는 전교생 앞에서 힙합 공연을 하는 것은 실제 언더그라운드 힙합계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SB 부원들은 동아리 활동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SB가 자타가 공인하는, 교내에서 선후배 사이가 가장 가깝고 편한 동아리 중 하나라는 점도 SB의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졸업식 날에 화환을 선물하는 것이 동아리 내 '전통'일 정도로 부원들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한다.

이러한 활발한 동아리 활동에 이어, 지난 겨울 방학 동안 SB의 동아리원들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준비했다. 바로 SB의 첫 공식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다. 9명의 부원은 방학 동안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트랙 콘셉트를 구상하고 직접 가사를 쓰며 앨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3월, 교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수익금 일부는 기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앨범은 비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SB 동아리원들의 순수한 창작물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감성 힙합, 알앤비 힙합 등 총 각양각색의 트랙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기존의 공연에서 보여

줬던 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의 모습, SB의 팔색조 같은 매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B의 9기 동아리장 구본욱 학생은 “하나고등학교 역사상 공연 동아리가 앨범을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학생들의 큰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힌 한편,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 중인 현역 래퍼들의 작업물에 버금갈 수 있는 양질의 앨범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공개될 곡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부원들은 이번 앨범을 계기로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타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힙합 하면 비속어와 디스전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공연마다 비속어를 순화 및 개사하였다. 이번 앨범에서도 SB 동아리원들은 힙합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학생다운 감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한다. 따라서 SB만의 감성이 어떻게 힙합을 이해하는지, 어떠한 힙합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하나고 학생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하나고등학교의 대표 동아리인 SB는 아직도 보여줄 것이 많다. SB가 야심 차게 준비한 앨범부터, 새로운 얼굴들과 2019년에 선보일 수많은 공연들까지 앞으로의 SB의 행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모든 것, 생물

- 2019, SEROC BIO와 함께



SEROC BIO는 어떤 동아리인가?

SEROC Bio는 Scientific Experiment Research Observation Club - Bio의 약자로 생명의 기원과 본질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인 생물학을 주제로 다양한 실험과 스터디, 봉사활동을 하는, 1기 때부터 내려온 하나고 최고(最古), 최고(最高)의 생물동아리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 실험, 스터디,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활동을 정리한 문집을 작성하고 있다.

다음은 2018년 SEROC Bio가 진행한 동아리 활동이다.

1) 실험 활동

동아리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주제를 정해 생물실에서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삼투압 실험으로는 유리관, 비커, 반투막, 스탠드 등의 기구와 0.1M(몰농도), 0.5M 설탕물과 0.5M 포도당 수용액, 0.5M 녹말 수용액을 이용해 높이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농도와 용질의 종류에 따른 삼투압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후, 그래프를

작성해 결과를 분석하고 삼투압은 용액의 농도와 온도에 비례하는 판트호프 법칙과 비교해 보았다.

- 한국의 제주도 및 세계 아열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돛발상어를 해부하였다. 해부 기구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부하기 전 동물실험에 관한 생명윤리에 관하여 생각을 하였다. 돛발상어의 해부에 대한 한국어판 매뉴얼이 없어 부원들과 함께 해부학 용어를 익히면서 돛발상어 해부 매뉴얼을 만들었다.

2) 스터디 활동

작년에는 생리학, 생화학, 뇌과학 세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 생리학의 경우 <동물생리학(Sherwood), 라이프사이언스>, 세포 분자 생리학, 근육 생리학 등 여러 생리학의 분야를 다루면서 각자 맡은 부분을 스터디 전 연습과 추가 자료조사로 익힌 뒤, 수업 형식으로 스터디원들 앞에서 유인물과 PPT를 통해 발표하였고 후 어려운 부분을 서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생화학에서는 <레닌저 생화학(Nelson), 월드 사이언스> 교재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프린트를 가지고 발표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발표 후에는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였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것과 궁금한 점을 조사하여 다음 스터디 시간에 발표하였다

- 뇌과학에서는 <Neuroscience>와 <Brain facts>를 교재로 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유인물로 정리, 공유, 발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경과 뇌과학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를 하였

3) 봉사활동

- 동아리원 간 회의와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기획하고 재료를 준비하여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젤리를 이용한 DNA 이중나선 모형 만들기」와 「크래커와 슬라이스 치즈, 방울토마토, 딸기잼을 이용한 효소-기질 복합체 모형 만들기」 등의 주제로 어린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해준 다음 만들어 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로 생물의 기본 원리를 보여줌으로써 생물학을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느낄 기회가 되었고,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즐거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생물학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신입 부원들과 노련한 선배 부원들이 함께 어울려 여태껏 시도해보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와 관련하여 홍역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 원인과 관련된 수학적 모델링을 시도해보고, 또한 VGL II, Bioedit 등 다양한 유전자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전자 탐구를 할 계획이다. MEGA를 활용한 미토콘드리아 이브 유전자와 인간 유전자와의 대조 외에 외계인, 생명윤리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다른 동아리들과 연합 포럼, 외계 지적 생물 탐사(SETI), 크라우드 소싱 프로젝트를 통한 생물 원리 이해 등을 할 계획이다.

○ 창체: 김서현, 박지연, 서준원, 오윤지, 전선기, 한석희

○ 자율: 김다빈B, 김동한, 김지은A, 박진, 서지원, 송서영, 육경은, 윤채영, 이수민, 이재혁, 이지민, 이지우, 진하영, 김수아, 김승혁, 이정민, 최제한, 한예찬

당신이 사회에 하고픈 말이 있다면 하나신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망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문의: 국문신문부 동아리장 E-mail) medalerkid@gmail.com

하나고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법인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7.03.02. ~ 2017.08.25.)

- (재) 정현재단
- 동파장학회
- 전순영님

▷ 학교발전기금을 후원해주신 분들 (2016.01.01. ~ 2016.05.10.)

- 하스누 2기
- 하스누 3기
- (재)우석문화재단

▷ 하나고등학교 후원 안내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후원은 자라나는 인재들이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반듯한 인성과 친기업 정서를 지닌 건전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학교법인사무국(02-6913-1701, 1708)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실 분께서는 행정실(02-6913-170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나를 키운다. 내가 세계를 키운다.



하나고등학교
Hana Academy Seoul